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 성향에 미치는 영향

서석원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ADHD Tendency

Seok-Weon Seo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tholic Sa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 (2014) 자료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아버지, 유아 각각 1,47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ADHD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각변인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의 ADHD 성향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 동은 부적 상관관계에 해당하였으며 유아의 ADHD 성향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ADHD 성향에 7.2%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은 유아의 ADHD 성향에 부적 영향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ADHD 성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유아의 ADHD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강화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among children.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7th year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KS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473 mothers, fathers, and their children who responded to the parent and child questionnaires. Cronbach's alpha values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parenting behavior responses and the risk of ADHD in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nd influence of each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hildren's risk of developing ADHD and warm parenting behavior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and the children's risk of developing ADHD and parenting stres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Second, warm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had a 7.2%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risk of developing ADHD. Also, warm parenting behavior had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ADHD tendencies, and parenting str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children's ADHD tendencies. These results showed that to reduce the risk of ADHD in children, it is necessary to improve parenting behavior and reduce parenting stress.

Keywords :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s(ADHD)
Tendency, Warm Parenting, Controlling Parenting

*Corresponding Author : Seok-Weon Seo(Catholic Sangji Univ.)
email: smallstar2@hanmail.net

Received July 21,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September 15,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1. 서론

유아기 발달상황은 이후의 아동기,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삶 전반의 발달에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유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은 유아기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이후 학령기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아기를 포함한 아동기에 발현되는 문제행동 60% 가까이는 이후에도 그 문제행동이 지속되고 [1], 비행과 일탈 등의 범죄 문제로 까지 확대되어 악순환이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2]. 따라서 유아기에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기에 발현되는 다양한 문제행동 가운데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하는 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장애의 하나로, 주의가 산만하고, 높은 충동성과 과잉행동 등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 대부분 ADHD가 유아기가 지나고 학령기에 진단되지만 그 증상은 만 3~5세경인 유아기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70% 이상은 만 4세 이전에 발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 다른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약 70%에서 문제행동이 지속하게 된다[5].

유아기의 ADHD 성향은 유아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약속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6]. 그리고 유아기 이후 아동과 청소년기의 낮은 자존감, 약물 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 반사회적인 행동, 품행장애, 높은 우울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이렇듯 ADHD 성향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ADHD의 원인으로 크게 유전적 요인을 포함해 뇌손상 및 뇌기능 장애를 원인으로 꼽는 생물학적 요인과 가족 및 양육 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 전통적으로 생물학적 원인인 유전적 요인과 뇌 손상 및 뇌기능 장애와 관련 요인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9]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가변성이 높은 가족 및 양육환경의 특성인 환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유아기는 부모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부모관련 변인들이 유아의 발달에 강력하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ADHD의 원인 중 하나인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 관련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관련 변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히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견지할수록 자녀의 주의 집중력과 만족을 지연시키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11]. 또한 부모가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부모 양쪽이 일관된 양육태도를 견지하면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하지만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무조건 허용하는 양육태도,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리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과잉행동과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정서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15].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면 자녀의 주의력 문제 및 과잉행동 등의 성향이 줄어드는 반면 부모의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과잉행동, 정서불안,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유아기 자녀의 ADHD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아동의 주양육자가 양육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아동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아동의 공격적인 반응이 증가하였다 [18].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보다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결국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고[19] 이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악화시키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

하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견지하기 힘들고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강압적인 양육태도가 증가하며 결국 자녀의 공격성과 정서문제, 과잉행동 문제 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문제행동 가운데 직접적으로 ADHD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모 변인 중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가운데 ADHD 성향을 중심으로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 변인을 포함시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ADHD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의 ADHD 성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ADHD 성향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7차년도(2014) 자료조사에 참여한 1,620명 중 본 연구의 연구도구에 모두 참여한 어머니, 아버지, 유아 각각 1,473명이다. 연구대상인 어머니, 아버지, 유아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인 어머니, 아버지, 유아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을 Table 1 제시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에서 활용된 도구로 각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2.2.1 부모의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Cho, Lee, Lee, 그리고 Kwon[20]이 제작한 측정도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

(N=1473)

content	division	N	%
Child's gender	male	755	51.3
	female	718	48.7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429	29.2
	college	406	27.6
	university	550	37.3
	master	84	5.7
	missing data	4	.2
Fa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397	27.1
	college	299	20.3
	university	615	41.8
	master	156	10.6
	missing data	6	.2
M(SD)		min	max
Child's month	75.09(1.42)	72.0	79.0
Mother's age	36.81(3.69)	25.0	53.0
Father's age	39.28(4.00)	25.0	56.0

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참고하여 자체 제작하였다. 총 12문항, 2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온정적 양육행동 6문항, 통제적 양육행동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가운데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등의 온정적 양육행동 질문과 '나는 아이가 어렵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나는 아이가 내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등의 통제적 양육행동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양육행동이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863$ 이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737$ 이다. 또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865$ 이고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788$ 이다.

2.2.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Kim과 Kang[21]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가운데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878$ 이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872$ 다.

2.2.3 유아의 ADHD 성향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유아의 ADHD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Oh와 Kim[22]이 개발한 유아 행동평가척도 중에서 ADHD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ADHD 관련 행동은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부산하거나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하고 만약 뜻대로 안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모습을 측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당장 들어줘야 하고 기다릴 줄 모른다’, ‘요구사항들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어야 한다’, ‘이 일 저 일에 잘 끼어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해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런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ADHD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26$ 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연구대상인 어머니, 아버지, 유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ADHD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여 검증하였고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아의 ADHD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간의 지나친 상관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공차한계, 분산팽창지수(VIF) 값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활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왜도 절대

값은 0.04~0.83으로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은 0.01~1.18로 절대값 7보다 작아서 다변량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23].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인 유아의 ADHD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각각 $-.238(p<.01)$, $-.155(p<.01)$, $.328(p<.01)$, $.157(p<.01)$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ADHD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아의 ADHD는 어머니,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2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 결과 회귀 모형식의 F값이 22.134이고 p 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ADHD 성향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변인 중 유아의 ADHD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이었으며 어머니,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ADHD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β 값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β 값은 .148, $-.101$, .087, $-.059$ 였으며 제시한 순서대로 유아의 ADHD에 대한 강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위 변인들이 유아의 ADHD 성향에 미치는 총 영향력은 7.2%였다.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 독립변인간의 높은 상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인 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보통 공차가 0.1이상이고 VIF값이 10을 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24]. 본 연구에서 공차는 .642~.997이고 VIF는 1.003~1.557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1.964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근접하여 각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회귀모형에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each variable

	a	b	c	d	e	f	g
a	1						
b	.150**	1					
c	-.550**	.050	1				
d	.288**	.051	-.248**	1			
e	-.011	.269**	.046	.134**	1		
f	-.235**	.009	.355**	-.528**	.042	1	
g	-.238**	-.015	.328**	-.155**	.022	.157**	1
M	3.64	3.47	2.57	3.52	3.31	2.38	2.23
SD	.53	.49	.61	.57	.54	.57	1.99
S	-.28	-.29	.18	-.21	-.06	-.04	.83
K	.92	1.18	.24	.79	.57	-.01	.19

a=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b=mother's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c=mother's parenting stress, d=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e=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f=father's parenting stress, g=children'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s(ADHD) tendency

* $p < .05$, ** $p < .01$

Table 3. Factors affecting children'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s(ADHD) tendency

	B	S.E.	β	t	R2(R2adj)	$\Delta R2$	Multicollinearity		F
							Tolerance	VIF	
mother's parenting stress	.580	.139	.148	4.164***	.054(.053)	.054	.642	1.557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455	.154	-.101	-2.960**	.062(.060)	.008	.695	1.438	
father's parenting stress	.364	.127	.087	2.869**	.068(.066)	.006	.871	1.148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265	.127	-.059	-2.086*	.072(.068)	.004	.997	1.003	22.134***
mother's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816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978					
(constant)	2.431	.921		2.640**					

* $p < .05$, ** $p < .01$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ADHD 성향과는 부적 상관관계였고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ADHD 성향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ADHD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의 연구[25]에서 ADHD의 증상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부적 관련성이 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Yoon과 Lee[26]는 ADHD 경향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주의력결핍의 경향성이 어머니, 아버지의 원만한 양육행동과 부적 관련성이 있지만 부정적인 양육행동과는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ADHD 성향과 부적 관계가 있다

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 성향과 정적관계가 있다는 Kim의 연구[25]와 어머니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와 정적관계가 있다는 Lee와 Noh의 연구[27]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ADHD 성향에 정적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해 준다.

둘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ADHD 성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 때 아동의 ADHD 성향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28]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29], 아버지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자주 보일수록 자녀의 충동성이 감소하고 주의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30], 그리고 자녀에게 애정을 자주 표현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31]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32]에서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ADHD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온정적 양육행동과는 반대로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ADHD 성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ADHD와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Kim의 연구[25], 그리고 Yoon과 Lee의 연구[26]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통해 보다 엄격히 자녀의 심리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통제하는 양육행동으로[33] 방임이나 폭력을 수반하는 부정적 양육행동과는 구별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양육행동을 부정적 양육행동과 구별하여 생각한다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ADHD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와 이에 따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통제적 양육행동은 ADHD 성향을 발생시키거나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ADHD 성향을 부모자신의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귀결시켜 부모가 죄책감을 갖는 등의 부정적 심리를 가중시키기 보다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 성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ADHD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ADH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다는 유아의 ADHD 성향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34,35].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36]는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 유아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밀접한 관계로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에게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자녀는 공격성, 충동성, 과다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통제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8] 역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ADHD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ADHD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유추해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25,34]는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방해하고 이것이 자녀의 ADHD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ADHD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ADHD 성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유아기 ADHD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견지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변인에 비해 유아의 ADHD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31]의 연구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Jung과 Lee[33]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

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ADHD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ADHD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자녀의 ADHD 성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 양육을 위한 기술이나 지식 전달 위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정서 관리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서로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에 비해 유아의 ADHD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양육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버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어머니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아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또는 아버지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기 ADHD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아의 ADHD 성향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세변인간의 관계와 영향의 경로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이에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유아의 ADHD 성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각 변인 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각 변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통해 ADHD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H. J. Baek, H. J. Hwang,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9, No.3, pp.1-27, 2006.
- [2] S. H. Nam, Y. H. Kim, "Mother's psychological factors and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mal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38, pp.199-213, 2000.
- [3] S. J. Yang, S. S. Jung, S. D. HongY,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 in Seou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45, No.1, pp.69-76, 2006.
- [4] B. N. Kim, S. U. Shin, J. S. Kwon, M. S. Shin, S. C. Cho, K. E. Hong, "QEEG findings in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39, No.1, pp.208-218, 2000.
- [5] G. C. Rappaport, A. Ornoy, "Is early intervention effective in preventing ADHD?",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Vol.35, No.4, pp.271-279, 1998.
- [6] K. Baldwin, R. T. Brown, M. A. Milan, "Predictors of stress in caregiver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hildre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23, No.2, pp.149-160, 1995.
DOI: <https://doi.org/10.1080/01926189508251345>
- [7] H. J. Kong, J. U. Mun, "A comparative study on mothers caring attitude betwee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normal children", *Korean Soc Health Educ Promt*, Vol.21, No.1, pp.297-317, 2004.
- [8] D. I. Kim, M. K. Lee, "Emerging alternativ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etiology: attachment theor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7, No.2, pp.523-540, 2006.
- [9] H. J. Hwang, "A Comparative Study on Exposure Computer, Video, and Television between ADHD-Child and Non-ADHD-Child",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68, pp.107-123, 2011.
- [10] D. Kaufmann, E. Gesten, R. C. S. Lucia, O. Salcedo, G. Rendina-Gobioff, R. Gad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parents'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9, No.2, pp.231-245, 2000.
DOI: <https://doi.org/10.1023/A:1009475122883>
- [11] M. C. Paulussen-Hoogbeem, G. J. J. Stams, J. M. Hermanns, T. T. Peetsma, G. L. van den Wittenboer, "Parenting style as a mediator betwee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roblematic behavior in early childhoo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169, No.3, pp.209-226, 2008.
DOI: <https://doi.org/10.3200/GNTP.169.3.09-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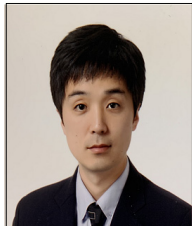
- [12] M. Putallaz, A. H. Heflin, Parent-child interaction.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1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1-189.
- [13] C. H. Hart, D. M. DeWolf, P. Wozniak, D. C. Burts,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Vol.63, No.4, pp.879-892, 1992.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2.tb01668.x>
- [14] K. Aunola, J. E. Nurmi,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76, No.6, pp.1144-1159, 2005.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5.00840.x-i1>
- [15] Y. T. Oh, G. S. Yeon,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stress of mothers, self-esteem of childre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nd Intellectual capacity of childre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0, No.10, pp.31-50, 2018.
- [16] K. A. Crnic, M. T. Greenberg,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61, No.5, pp.1628-1637, 1990.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0.tb02889.x>
- [17] J. Belsky,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7, pp.3-23, 1981.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17.1.3>
- [18] J. A. Park, k. S. Lee, Y. J. Shin, "Effects of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4, No.4, pp.549-566, 2009.
DOI: <http://doi.org/10.18205/kpa.2009.14.4.004>
- [19] Y. M. Kim, H. N. Song, H,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with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9, No.2, pp.71-88, 2015.
- [20] B. H. Cho, J. S. Lee, H. S. Lee, H. K. Kwon,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n parenting sty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7, No.10, pp.123-133, 1999.
- [21] K. H. Kim, H. K. Kang, "Research :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5, No.5, pp141-150, 1997.
- [22] K. J. Oh, Y, A. Kim.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CBCL 1.5-5, Huno Consulting, 2009.
- [23] P. J. Curran, S. G. West, J. F.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1, No.1, 16, 1996.
DOI: <http://dx.doi.org/10.1037/1082-989X.1.1.16>
- [24] M. H. Huh, Statistical methodology, p.261, Hannareae, 2008. pp.1-261.
- [25] S. Y. Kim,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ADHD symptoms,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10, pp.330-339,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10.330>
- [26] H. Y. Yoon, S. H. Lee, "A study on the factors attributing to parenting styles of parents who referred their child to clinical setting for ADHD related tendencie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15, No.2, pp.31-55, 2011.
- [27] Y. J. Lee, S. H. Noh, "The effect of parent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on child's problem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1, No.4, pp.301-324, 2017.
- [28] W, H. Sook, H, S. Ja, C. S. Park.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Related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in Early Childhood and Early School-age ADHD: Warm Caregiving, Learning Readines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Vol.25, No.3, pp.69-89, 2021.
DOI: <https://doi.org/10.35184/kshce.2021.25.3.69>
- [29] A. Knafo, R. Plomin, "Parental discipline and affectio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genetic and environmental lin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0, No.1, pp.147-164, 200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0.1.147>
- [30] S. E. Lee, "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attention ability by parent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8, No.2, pp.71-89, 2007.
- [31] S. W. Seo, "The effect of mother's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on her infant's problem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affective parenting attitude",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8, No.4, pp.51-71, 2019.
DOI: <http://doi.org/10.30761/ecoece.2019.18.4.51>
- [32] J. Y. Jang, J. H. Kim, Y. H. Kim,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ing style on problem behavior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2, No.2, pp.79-107, 2011.
- [33] H. S. Jung, S. M. Lee. "The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Family Interac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5, No.4, pp.199-221, 2010.
DOI: <https://doi.org/10.32349/ECERR.2021.8.25.4.199>
- [34] Y. H Shin, H. H. Chung, S. Y. Choi,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ADHD Symptoms, Mothers' Stress and Behavior Regarding Nurturing,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elf-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19, No.3, pp.143-158, 2010.
- [35] H. S. Shin, J. M. Kim,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maternal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at risk for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0, No.3, pp.453-461, 2010.

DOI: <https://doi.org/10.4040/ikan.2010.40.3.453>

- [36] H. R. Kim, S. M. Ryu,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s behavior problem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yl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9, No.2, pp.193-209, 2015.
- [37] E. L. Cowen, W. C. Work, P. A. Wyman, G. R. Parker, M. Wannon, P. Gribble, "Test comparisons among stress-affected, stress-resilient, and nonclassified fourth-through sixth-grade urban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0, No.3, pp.200-214, 1992.
DOI: [https://doi.org/10.1002/1520-6629\(199207\)20:3<200::AID-JCOP2290200304>3.0.CO;2-W](https://doi.org/10.1002/1520-6629(199207)20:3<200::AID-JCOP2290200304>3.0.CO;2-W)
- [38] J. S. Kim, "The influences of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s self-control: With mediation of warm parent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1, No.1, pp.29-49, 2017.
DOI: <https://doi.org/10.5718/kcep.2017.11.1.29>

서 석 원(Seok-Weon Seo)

[정회원]



- 2012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5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영유아 발달, 부모교육